

2018년 4월 11일

emerics@kiep.g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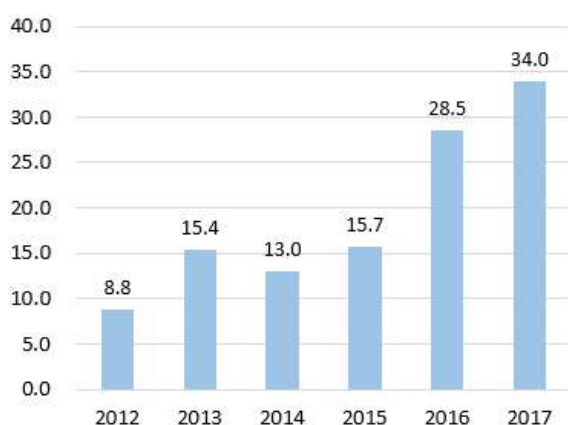
모로코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세 지속



-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면서 모로코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.
 - 모로코 정부는 2030년까지 자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52.0%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고, 태양광·열 및 풍력 발전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왔음.
 - 2015년 모로코의 GDP 대비 신재생에너지 부문 투자 비중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았음.
 - 2017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2012년 대비 네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투자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.
 - 2018년 2월 모로코 신재생에너지진흥원(MASEN: Moroccan Agency for Sustainable Energy)은 2017년 자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2015년 대비 두 배, 2012년 대비 네 배 가까이 증가한 34.0%를 달성하였다고 발표함.

그림 1.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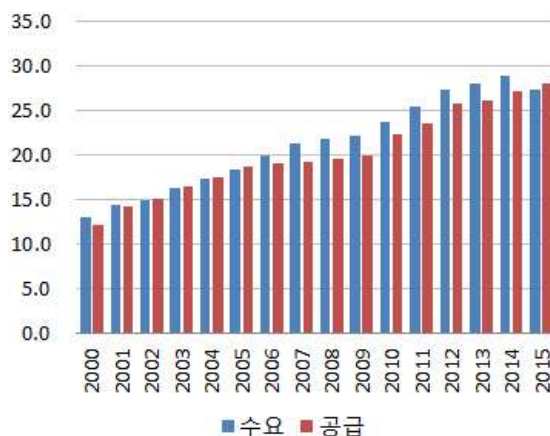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자료: EIA; MASEN.

그림2. 전력 수요·공급 추이

(단위: 백만 MWh)



자료: EIA.

- 모로코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최적의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, 늘어나는 전력 수요 충족, 에너지 자원의 해외 의존도 감축,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.
 - 모로코는 풍부한 일사량과 긴 일조시간, 일정하게 유지되는 풍속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리한 기후조건을 보유하고 있음.
 - 모로코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일사량이 높은 국가이며, 연평균 일조시간은 3,000 ~ 3,200시간에 달함.
 - 더불어 북부 및 서부 해안지대의 연평균 풍속이 8m/s를 상회하는 등 풍력에너지 발전에도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음.
 - 높은 인구 증가율과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 등으로 모로코 전력 소비량이 가파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전력 생산시설 확충 및 에너지원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.
 -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 모로코의 평균 전력 소비 증가율은 5.1%에 달했으나,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 전력부족분을 스페인, 알제리 등지로부터 수입해 옴.
 - 아울러 모로코는 석유,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거의 생산되지 않아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해외 의존도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선을 확보하려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필수적임.
- 모로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, 자국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관련 시설 및 원부자재의 수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진출 여지가 큼.
 - 2018년에도 미델트(Midelt) 풍력 단지 건설 등 관련 프로젝트가 지속될 예정이며,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42.0%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.
 - 2018년 모로코는 누어 라아유네(Noor Laayoune), 누어 부즈두르(Noor Boujdr) 등 태양광 발전소 확장 건설과 미델트(Midelt), 타자(Taza) 등 총 300MW 규모의 풍력 단지 건설을 추진할 예정임
 - 모로코는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및 관련 설비 생산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, 과거 유럽기업에 집중되어온 사업처를 다변화하여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진출 여지가 큼.
 - 발전소 건설 공사에서 파생되는 변전소, 전력망, 에너지저장장치(ESS: Energy Storage System) 확충 등의 전력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 또한 향후 발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.

EMERiCs

(작성: 유광호 연구원 /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중동팀)